

July 1. 2018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예수 우리 왕이여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249장(주 사랑하는 자)
Prayer 기 도	조홍진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마태복음6:38-48
Choir 성가대찬양	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Sermon 말 씬	김원기 목사

“ 사랑에 대하여 ”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00
☐ 성가대 연습.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삼상22:11-19 ☐ 제목: 아히멜렉의 증언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라계용권사	인도 : 라태한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정식장로	인도 : 조홍진장로
☐ 무 - 구역장 : 김봉채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최은자권사	인도 : 김원기목사
☐ 실버 - 구역장 : 정선옥사모	인도 : 정윤두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2018년 표어 “예수님처럼-예수님처럼”(요15:10)
- 이달에 입을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 2018년 7월
7/01 정기카운실
7/04 독립기념일(특별새벽기도회)
7/08 남녀선교회모임, 3구역(무)구역모임
7/15 정기제직회(수입지출보고) 2구역(감자)구역모임
7/19 (목) CRC코암노회 운영위원회모임(세계로교회)
7/29 생일축하, 교역자회의, 4구역(배추)구역모임
- 지난주 총동원주일이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 7월부터 구역모임이 있습니다.(구역장 구역원 확인 바람.)
- 8월6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수련회 기간입니다.
- 교우동정 :
-한경환 권사(자택에서 요양중)
-김창남 권사(플러튼 요양병원:기도요청)

주일2부 대표기도순서
7/08,라태한장로 7/15,이화정장로 7/22,성기현장로 7/29,조홍진장로
토요일 새벽기도순서
7/07,김봉채권사 7/14,성승록권사 7/21,장정남권사 7/28,라계용권사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 | |
|-------------------|------------------|
| ☐ 기도 : 1부- 합심기도 | •2부- 라태한장로 |
|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 •2부- 황동균집사 |
|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

교회를 섬기시는 분

- | | |
|--------------------------|--------------|
|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 전도사 : 황창원 |
| ☐ 시무장로 : 김경식 라태한 성기현 조홍진 | ☐ 협동장로 : 이화정 |
| ☐ 음향간사 : 장정관 | |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EM헌금 : \$
주일헌금 : \$	건축헌금 : \$
감사헌금 : \$	기타 : \$
지난주일 합계 : \$	

마태복음6:25-34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25)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즉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여행 중이라 우물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서 광야 40년간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렸을 뿐입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26)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은 진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종종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머리로는 아버지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굳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27)

노만 빈센트 펠 박사는 ‘사람이 걱정 하는 일 중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6%,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염려하는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해야 할 4%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32)

윌리엄 오슬로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은 사람이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존 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가 풋내기 의대생이었을 때,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이러한 어둠에서 끌어낸 것은 우연히 읽게 된 토머스 칼라일의 글 한 토막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몬트리올 제네럴 병원에서 근무하던 무명시절부터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가 훗날 예일 대학에서 연설을 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오늘뿐이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계속 드린다면,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